

##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현황분석\*

### An Overview and Analysis of Digit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정 헌 태\*\*

Hyun-Tae Joung

차 례

- |                      |                         |
|----------------------|-------------------------|
| 1. 문제의식              | 4.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비판적 검토 |
| 2. 공공도서관 정보화의 추진성과   | 5. 맺음말                  |
| 3.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현황 | · 참고문헌                  |

#### 초 록

본고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전산화 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디지털서비스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디지털서비스의 기술수준은 매우 우수하지만,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본고는 지역특성에 근거한 특성화된 자원개발을 인터넷 시대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생존전략으로 강조하였다.

#### 키 워 드

디지털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공공도서관, 인터넷서비스

\* 이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와 KISTI가 공동주최한 '2003년도 동계워크샵' 발표 자료를 재정리·가필한 것임.

\*\* KISTI 정보자료센터 초청연구원  
(Visiting Researcher, Information Resources Center, KISTI, huntj@kisti.re.kr)

· 논문접수일자 : 2003년 2월 26일

· 게재확정일자 : 2003년 3월 6일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overview of computerization process in Korean public libraries and reviews several problems of digital services through the library homepage. It is pointed out that digital service level is very high in technical quality, but the difference by regional groups in service quality is severe. This study emphasizes that a specialized resource development based on the regional feature be the survival strategy of digital service in public library at the age of internet.

## KEYWORDS

Digital Service, Homepage Service, Public Library, Internet Service

### 1. 문제의식

정보서비스에 응용되는 컴퓨터기술이 편리해지면서 각종 온라인 디지털정보에 대한 정보수요가 늘고 있으며, 공공정보의 서비스한계를 넘어 수익성이 확인되는 실용정보에 대한 온라인 DB산업이 경제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업용 정보서비스의 범람현상은 정보서비스의 공공채널로서 공공도서관의 오랜 입지를 위협하는 한편, 지역 및 계층 간 정보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민주적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상반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공공정보의 접근채널로서 사회적 소임이 강조되는 민주적 역할에 부응하여, 인터넷상 각종 정보서비스 주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 개발전략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정

보화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디지털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해, 공공적 정보서비스 매체로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검토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작게는 관련 현장의 이해를 구하고, 크게는 국가정책의 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디지털환경에서 공공도서관의 발전전망에 유익한 소견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정보화 수준 및 디지털 서비스에 있어 적지 않은 지역 편차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운영 형편을 구체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그간의 도서관전산화 진행과정과 정부 정보화투자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다양한 디지털서비스 내용분석, 국내외 우수도서관의 홈페이지 디지털서비스 내용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본고의 의도는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상에 내재하는 인과적 원리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디지털서비스 운영현황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추려내어, 장래의 디지털정보 서비스 발전 전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발전략을 제안해 보려는 의도에서 상황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공공도서관 정보화의 추진성과

### 2.1 공공도서관 전산화 경과

국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컴퓨터를 도입하여 부분적 업무전산화를 시작한 것은 사회 제 부문의 정보화 발전과정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일부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서 컴퓨터를 도입하여 목록정보서비스 및 대출업무 등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도서관들이 소장 장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을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 1973년이었고,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고가의 대형컴퓨터를 구입하

여 서지입력과 대출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였던 시기가 70년대 후반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 도서관현장에서 전산화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80년대 후반 퍼스널컴퓨터의 상업적 보급이 일반화되어 사회 전 부분에 있어 업무전산화가 확산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소규모 도서관의 업무전산화가 가능한 386PC의 보급과 함께 상업개발업체에 의한 도서관전산화 패키지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국내 전산장비와 개발인력의 자급수준이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탐색을 통해 주요 도서관의 연보에 기록된 전산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위 연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전산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상업적 패키지가 설치되기 시작하는 1990년이 지나고부터였다. 1989년에 대구 중앙도서관이 IBM PC를 도입하여 전산화를 시작하고, 1990년 목동도

<표 1> 국내 공공도서관 정보화 간략연보

1989년	대구중앙도서관 IBM PC 6대 설치
1990년	목동도서관 정리용 컴퓨터 사용(사업용 패키지 Librarian Plus)
1993년	국립중앙도서관 KOLAS(Ver 1.0) 보급시작
1993년	정독도서관 주전산기(TICOM II)설치
1995년	대구중앙도서관 소장목록 DB구축 완료
1997년	서울시립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서비스
1997년	정독, 남산, 마포도서관 전자도서관 설치
2000년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보급
2001년	정독도서관 전자도서관프로그램(SDLPro) 운영개시
2002년	대구 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개설
2002년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취작

서관(현 양천도서관)에서 상업용 패키지인 Librarian Plus를 이용하여 목록입력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공공도서관 전산화가 본격화되는 1992년도 한국도서관통계에 집계된 내용을 보면, 당시 273개관의 공공도서관중 PC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모두 46개관(16.5%)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PC의 성능은 하드 40~120메가 수준의 286PC 및 386PC로 불리우는 보급용 퍼스널컴퓨터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집계된 46관중 모두 30개관(65.3%)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의 광역시 소재 도서관들로, 대도시 지역의 도서관들이 초기 전산화를 주도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1992).

1993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업무전산화 소프트웨어로서 개발한 KOLAS(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 1판이 보급되어, 도서관마다 개별적으로 도입되던 전산화 프로그램들이 표준적인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고, 1995년에는 주요 도서관마다 소장자료에 대한 입력작업을 완료하고 PC통신을 통한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도서관의 목록검색이 가능하게 되었고, 선도적인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자료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하여 시설과 장비투자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시작된 IMF경제위기는 공공도서관 전반의 경영위기를 가져왔고, 전자자료실의 명칭으로 보급의 기회를 모색하던 디지털서비스는 예산 및 인력부

족으로 사업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2002년 한국도서관통계의 집계에 의하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전산화 구축률은 응답 370관 중 363관이 업무전산화를 이루었다고 보고하여 98%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문화기반시설 평가연구의 결과에서는 4관(1.4%)의 공공도서관이 수작업 업무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고 무려 34관(12.1%)의 도서관이 이용자용 목록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조사대상 도서관들의 업무전산화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서업무 316관(87%), 목록입력 331관(91%), 검색지원 354관(96%), 대출업무 347관(96%), 장서관리 275관(76%), 연속간행물관리 45관(12%), 출입관리 5관(1.4%), 상호대차 6관(1.6%), 기타 5관(1.4%)로 집계되어, 자료의 등록, 편목, 검색, 대출 등의 업무전반이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화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속간행물관리나 출입관리, 상호대차업무 등에서 전반적인 전산화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2).

업무전산화에 채택된 패키지의 종류를 보면, KOLAS I 및 II가 178관(49%), MAE 47관(13%), MAESTRO 3관(1%), SOLAS, LINNET, AQIMS, 기타의 프로그램을 들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급하였던 KOLAS I과 II의 소프트웨어가 주력 프로그램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도

서관협회 2002).

전반적으로 90년대 공공도서관의 전산화 과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의 대표적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화 기술투자에 의욕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여력이 미치는 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관들이 그 혜택의 중심에 서고, 나머지 다수 공공도서관들이 정보화의 갈증에 목말라 하던 시기였다. 특히 공공도서관 정보화의 시설투자가 본격화되던 90년대 말 경제위기상황은 공무원총정원령에 의한 인적자원의 동결과 예산부족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전반의 경영위기로 이어져 구조조정과 명칭변경, 민간 위탁 등의 논쟁적 사안이 불거지며, 공공도서관 정보화 추진노력에 심대한 침체의 시기를 가져왔다.

## 2.2 공공도서관 정보화지원사업의 성과

경제위기로 침체된 공공도서관의 정보화 투자가 전국적 시설투자로 이어져 상대적 후진성을 벗어날 수 있었던 발전계기는 2000년 초 대통령지시로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한 정부의 도서관정보화사업계획이 있고부터였다. 이전까지 개별도서관위주로 마련되었던 정보화투자계획이 국가수준의 연차사업계획으로 수립되면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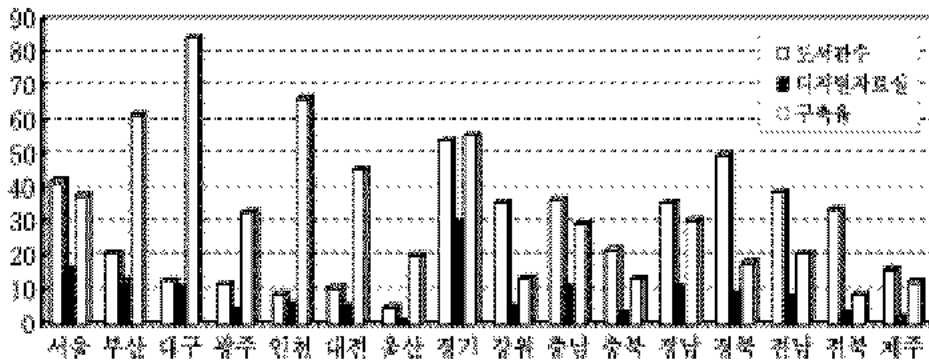
2001년 9월에 시작되어 2002년 6월에 완료된 1차 및 2차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관기관이 되어 주관사업자는 LG CNS와 ECO를 선정하고 전담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되었다. 표준시스템을 구성하여 현장실사와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디지털자료실 구축작업을 추진하였고,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을 마무리하였다(김종률 외 2002).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구축을 위해 지원된 장비 및 시설지원은, 도서관리 웹 보안 등 기능별 서버로 이용되는 하드웨어 시스템,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민간상용DB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들 시설 및 장비지원은 4가지 등급으로 차등화 하여 특대형,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였고, 각각 접속PC수와 지원금을 달리하여 도서관마다 자관의 이용환경 및 예산에 부합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참조).

공공도서관 정보화지원사업의 결과 모두 144관(분관6관 포함)의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이 구축되어 전국 437관 중 31.6%

<표 2> 디지털자료실 지원유형

구분	특대형	대형	중형	소형
도서관수	3관	44관	46관	45관
접속 PC 수	100대	50대	25대	10대
1관지원액	3억원	3억원	2억원	1.25억원



<그림 1> 전국의 디지털자료실 구축율 비교

의 공공도서관이 정보화시설투자의 지원혜택을 받았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 인천, 부산, 대전 등 대도시들이 디지털자료실 구축율에서 월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고, 도서관수의 비중이 높은 경북, 전북, 충북, 강원 등에서 디지털자료실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1, 2차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은 전국적 표준모델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운영의 평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인쇄자료 중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멀티미디어 자료와 온라인 DB를 서비스하는 디지털정보서비스의 주체로 탈바꿈시키며 디지털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의 의식전환을 가져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KOLAS II와 KOLIS NET의 보급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이용의 기초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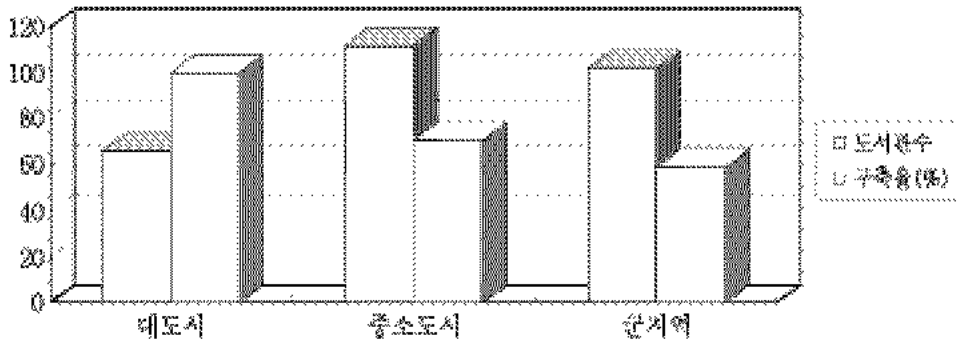
다만, 양질의 지식정보센터를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미흡한

운영교육프로그램, 유지보수지원체계의 불안 등은 디지털자료실의 제 기능을 저해하는 제약사항으로 차후의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3.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 현황

#### 3.1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 내용

정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 보급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02년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도서관 280관중 205관(73.2%)이 홈페이지를 통한 디지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 구축율 73.2%는 디지털자료실 구축율 31.6%에 비교하면 적은 비율이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되었던 공공도서관의 전산화 비율 98%에 비교해 보면, 아직도 많은 도서관이 도서관내부의 업무 전산화 수준에 머물며 인터넷을 이용한 이



<그림 2> 지역별 홈페이지 구축율

용자서비스 개발에 부진하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 280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반시설평가연구 결과에서 <그림 2>와 같이, 대도시 지역 도서관 66관 모두(100%), 중소도시지역 도서관 112관중 79관(70.5%), 군지역의 경우 102관중 60관(58.8%)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 지역규모별로 홈페이지 구축율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홈페이지 구축율이 낮아지는 대도시 편중 현상은, 정보화 현황분석을 통해 일관되게 지적되는 문제점의 하나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정책 사안이 아닐 수 없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전국 공공도서관 351관을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던 서혜란(2001)의 연구에서도 99년 말 인터넷 이용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50.4%에 불과하고, 특히 인터넷서비스 관련 전산장비 및 시설수준에 있어 대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 현상이 심각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서혜란 2001).

편향적인 지역격차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의 정보내용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1)도서관 이용안내, 2)목록정보 검색 3)지역 및 향토사 정보 4)행사 및 전시안내, 5)참고질의, 6)신착소개, 7)추천사이트 링크, 8)도서관소식 등으로 일반적인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의 전형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 다만, 서비스항목의 유사성보다 주목되는 점은, 홈페이지의 정보가 대부분 단순 사실정보의 나열에 머물러, 분석과 해설이 요구되는 주제정보 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보완을 필요로 하는 점이다(조찬식 2001).

전반적인 정보서비스 수준이 평준화하고 있는 중에도, 새로운 방식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도하며, 디지털서비스의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최근 전자책에 대한 별도의 전자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원문보기 및 복사서비스는 물론, KISTI 및

KERIS의 DDS채널을 이용한 원문서비스와 해외온라인DB에 대한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도 생겨나고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 독서모임방 제공(광주무등, 서울중앙), 웹페이지 번역서비스(춘천소양, 대구서부), 외국어 실전테스트(대구중앙, 대구서부), 특정주제관련 추천사이트 링크(춘천소양, 대구중앙), 사이버전시관(대구중앙, 대구동부), 동영상 VOD서비스(대구대봉, 춘천소양), Audio-Book 서비스(대구남부), 인터넷 사이버강좌(대구남부, 춘천소양), 취업정보서비스(서울남산) 등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서비스들이 시행되어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보수요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01년 서울시 소재 22개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조찬식의 분석연구에서는, 1) 홈페이지에서 사이트길잡이를 제공할 것, 2) 디지털서비스에서 멀티미디어자료의 비중을 늘일 것, 3) 홈페이지 관리상태를 나타내는 최종수정일을 제공할 것, 4) 메뉴구성을 통일할 것, 5) 대출반납 정보를 홈페이지 서비스구성에 포함할 것, 6) 자료와 사이트를 나열하는 정보보다 분석과 구조화를 통한 주제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조찬식 2001). 빠른 변화를 보이는 웹기술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홈페이지 보급수준에서 비추어 볼 때, 차후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들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설계지침으로 간주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정보자원의 서비스내용에는 다양한 DB 자원이 확인되고 있는데, 2002년 한국도서관통계에 집계된 원문제공 DB자원에는

동방미디어DB(47관), 한국학DB(45관), 한국학술정보 DB(42관), 기타DB(19관), DBPIA DB(14관), KINITI-IR DB(5관), 법누리 DB(12관), WIPS DB(4관) 등의 국내 DB와 EBSCO ONLINE(1관), ABI/INFORM(관), PQD(1관), 기타(3관) 등의 해외 DB등이 보고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2).

주로 상업적으로 구축된 국내DB에 대한 온라인 이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보급률은 최고 10%내외로 확인되어 아직은 도서관 밖의 디지털자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가 초기 단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자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도서관 밖의 디지털자원을 링크하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면서, 일부 디지털자원에 대한 서비스링크로 획일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자책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워낙에 한정된 디지털자원을 두고 도서관마다 경쟁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단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전국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가 본격화 될수록 국내외 한정된 온라인 DB자원을 두고, KESLI 방식의 집단구매나 지역 내 도서관간 분담 구매를 통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 3.2 공공도서관 지역특성화와 디지털 서비스

문화관광부는 지난 1998년 이후 공공도서관의 소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의미



<표 3> 문화관광부 지정 지역특성화 공공도서관

도 서 관	특성화 주제
경북 경주시립도서관	신라문화
경기 남양주미금도서관	실학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애니메이션
충남 부여도서관	백제문화
전북 전주시립도서관	판소리
전남 광주산수도서관	미술
대구 중앙도서관	섬유산업
부산 금정도서관	영상자료
대전 한밭도서관	과학기술
충북 제천시립도서관	의병활동
경남 창원시립도서관	공업환경
제주 서귀포시립도서관	관광
인천 화도진도서관	개항문화
경기 성남도서관	음악
전남 나주도서관	마한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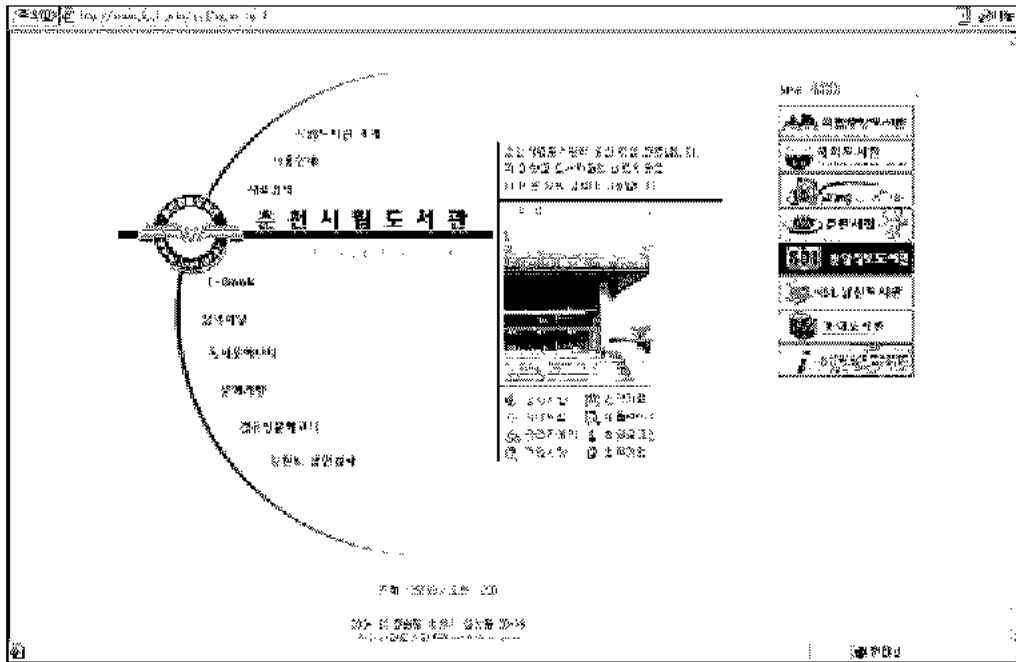
있는 장서구성을 유도한다는 취지아래, 전국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특성화자료 수집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표 3> 참조). 특성화 자료수집에 선정된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 6,500만원을 지원하고 추후 2년간 2,000만원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물론 이들 지역특성화자료 수집지원은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하는 지역밀착형 정보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고, 정보화 지원사업 이전 문헌자료를 염두에 두고 실시된 지원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설투자가 본격화되고 인터넷상의 디지털정보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네트워크에서 지역특성화의 의미는 더욱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정보서비스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

각되고 있다(차미경 2001).

이들 지역특성화 공공도서관들은 저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특화자료를 특설코너로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특성화된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많지 않았다. 지역특성화 지정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홈페이지에서 특정주제 정보를 특별히 강조하고는 있었으나, 웹 페이지에서 직접 해당 주제와 관련된 디지털자원을 자료로서 제공하는 도서관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에 소개되는 춘천시립도서관, 대구 중앙도서관, 인천화도진도서관은 지역특성화 지정 공공도서관 중에서 디자인과 서비스 내용이 우수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역특성화와 연계된 차별화된 디지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림 3> 춘천시립도서관



<그림 4>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 특성화 산업 공단 투자전략에 맞추어 애니메이션과 바이오테크에 특화된 소양정보도서관의 디지털자원개발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02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특별상을 수상한 도서관이다(<그림 3> 참조). 분관인 남산도서관을 농업특화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농사기술정보와 농가메모 등의 실용적 농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바로북과 와이즈북을 링크하는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 향토작가 김유정의 문학코너를 구축하여 작가소개, 연보, 유적, 추모제 등의 관련정보와 작가의 전 작품을 PDF파일로 다운서비스 하는 등, 고유의 디지털자원개발사례에서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은 지역별 공공도서

관 협력활동의 전범을 보여주는 대표도서관으로서, 전국 공공도서관의 디지털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도서관이다(<그림 4> 참조).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은 일찍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섬유산업활동에 보조를 맞추어 해당분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별도의 섬유정보자료실을 상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섬유관련 디지털자원을 수집 연계하여 수준 높은 주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북을 링크한 전자책도서관과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던 기획전들을 사이버 상에 옮겨 놓아 상설하고 있는 사이버 전시관이 눈길을 끈다.

인천화도진도서관은 적은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도 지역사회에 밀착한 주민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봉사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도서관이다(<그



<그림 5> 인천화도진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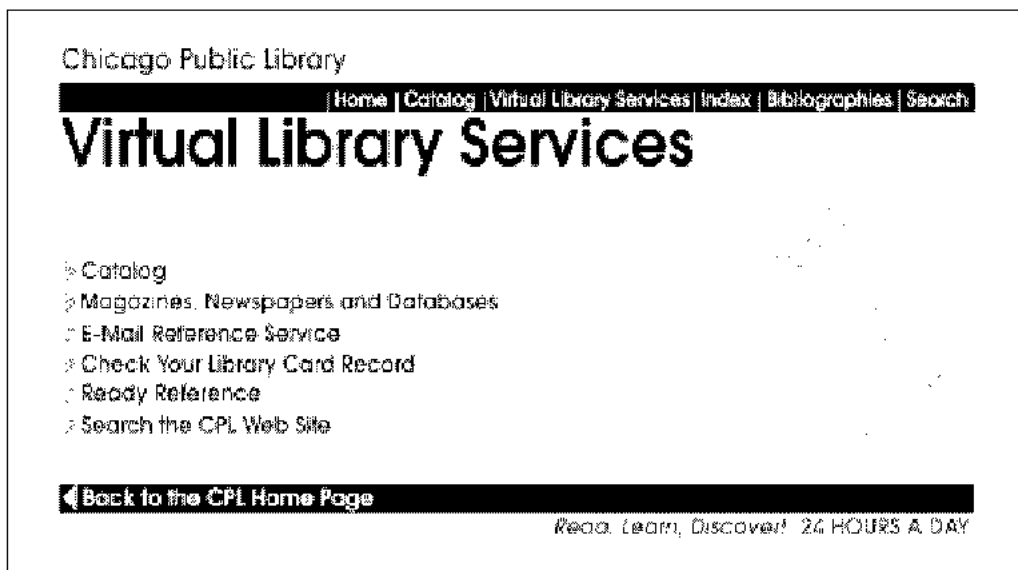
림 5> 참조). 동 도서관은 별도의 전시공간으로 마련하였던 개항문화자료관을 홈페이지로 옮겨, 인천의 개항유래정보와 풍물사진을 전시하는 개항역사관, 경제개발시기 인천지역의 사진자료를 전시하는 근대자료관, 개항시기 역사적 사료를 모아놓은 학습자료관을 통해 특성화된 디지털자원서비스의 모범적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다.

### 3.3 외국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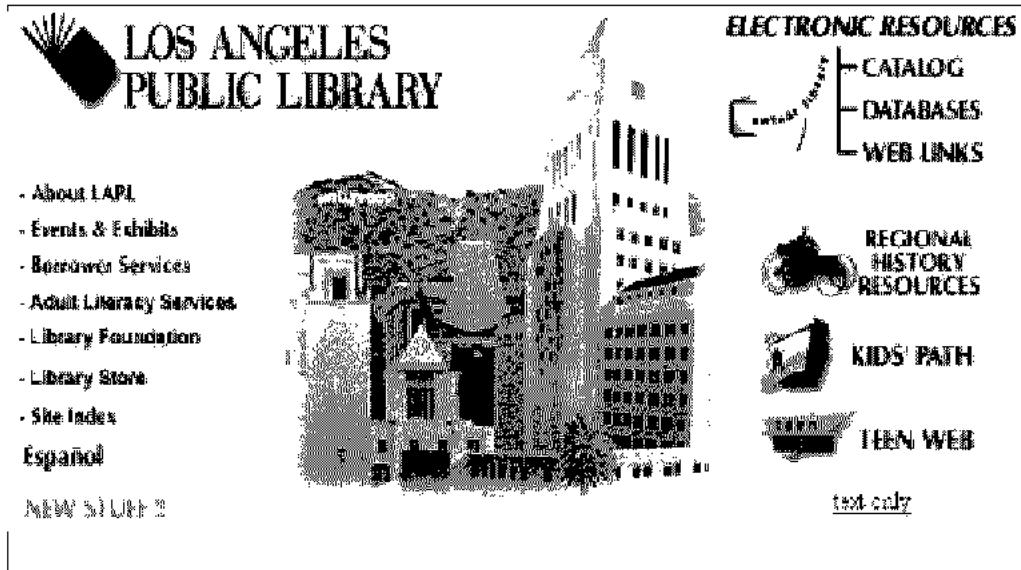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정보봉사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지름길은, 인터넷을 이용해 다양한 디지털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앞서가는 디지털서비스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앞서가는 공공도서관이 선진국 디지털서비스에 못지않은 최신의 기술과 방식을 응용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의 조사지표를 통해 주지되고 있는 바이다. 미국의 시카고공공도서관과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정보봉사의 내용은 국내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개발전망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중앙도서관과 2관의 지역도서관, 75관의 분관 등 모두 78관으로 이루어진 시카고공공도서관(<http://www.chipubweb.org/4carlweb/013databases/dbhome.htm>) 국내의 공공도서관과 비교하여 시설과 서비스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다소 비교의 대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디지털정보서비스의 내용에 참고할 점



<그림 6> 시카고 공공도서관



<그림 7>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비교해 보았다.

시카고공공도서관의 메인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우선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접근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별도의 Virtual Library Services 섹션을 구성하여,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디지털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6>의 화면에서 보듯이, 가상도서관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모토로 하여, 목록정보, 잡지신문 및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참고봉사, 도서관이용카드관리, 참고정보원 링크서비스를 주요 메뉴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중 잡지신문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DB의 명세를 보면, WorldCat, FirstSearch, InfoTrac, ProQuest, Eric, ABI/Inform, Medline 등 각종 유명 온라인DB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들 온라인DB에 대한 접속서비스는 도서관내에

서 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도서관이용자카드를 통해 가정에서도 인터넷 이용을 제공하는 관문(Gateway)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었다. 도서관이용자카드의 발급은 시카고주민과 인근 지역 일리노이 상호대차 협력도서관 580관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공공도서관(<http://www.lapl.org>)은 중앙도서관과 69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별한 점은 도서관이용자카드의 발급 때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뿐 거주지역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림 7>에 보듯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성인이용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서비스가 구분되어 있었고, 전자자원(Electronic Resources)의 이름으로 디지털정보서비스가 별도 구성되어 있었다.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되고 있는 183가지의 온라인DB들은 시카고도서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로 ERIC, InfoTrac, ABI/Inform, Marquis Who's Who, Moody's Company Data Direct 등 실용적인 상용DB들이 대부분이었고, 가정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이용카드번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도서관의 웹 링크서비스가 국내의 디지털정보서비스와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점은, 우선 양적으로 엄청난 참고정보원을 세세한 주제별로 명세를 구성해 놓음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일일이 주제정보 웹 사이트를 선별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는 점과, 사서들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해제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편 웹 페이지 구성에서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 각각에게 자주 이용되는 주제정보원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참고질의나 행사정보 등이 별도로 구성되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유의할 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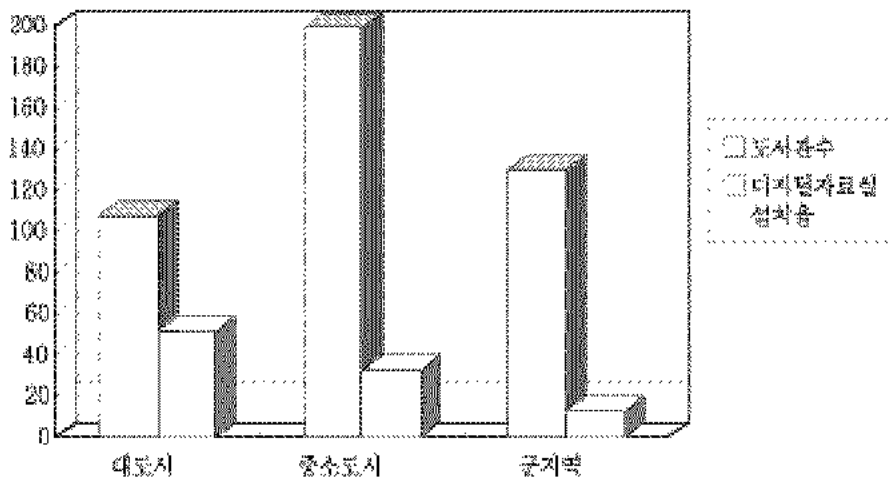
#### 4.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비판적 검토

##### 4.1 공공도서관 정보화의 문제점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문제점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공공도서관의 전산화추진 및 정보화지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책상의 문제점 몇 가지를 검토해 보았다.

첫째, 정보화 지원사업의 성과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간 협력사업의 부진이다. 행정이원화를 원인으로 특수하게 형성된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영여건이 도서관운영 전반에 심각한 활동장애가 되고 있다는 견해는 문화부로의 전담부서 이관이 있고부터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 논쟁사안이다.

2002년 문화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동일 행정지역 내 공공도서관들 간에도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도서관이 53.2%나 되고, 지역의 온라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



<그림 8> 지역별주별 디지털자료실 설치율

고 있는 도서관이 41.1%가 되며, 지역 내 문고지원실적이 없는 도서관이 52.1%가 되는 등 공공도서관간의 지역협력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간 협력활동은 개별도서관 정보자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보다 충실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도서관활동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행정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래 동안 소원하였던 도서관간 비협력의 전통은, KOLIS-NET의 참여율이 28%에서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보급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리적인 네트워크 통합에 우선하여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된다.

둘째, 디지털자료실 지원과 홈페이지 구축 등에서 확인되었던 지역적 불균형문제이다. 지난 해 437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보화지원 사업결과 모두 144관(분관6관 포함)에 디지털자료실이 설치되었다. <그림 8>에 나타나듯이,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지역에 56관(52%)이 지원되고, 낙후된 군 지역에 불과 17관(13%)이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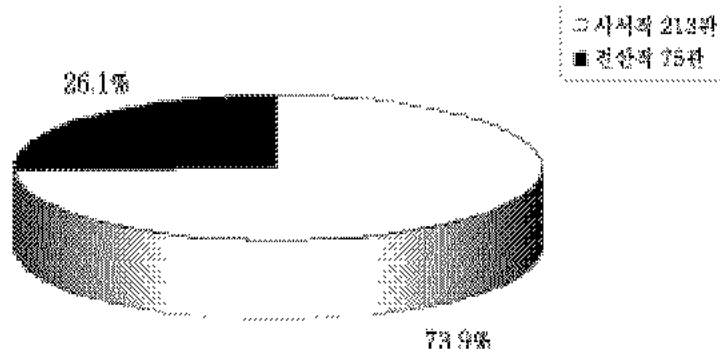
이는 앞서서도 지적되었듯이, 정부의 정보화지원이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을 같이 하는 매칭펀드 방식이어서, 재정여력이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도서관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리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김영기 2002).

차후 3차 공공도서관 정보화지원 사업에서는 특별히 농어촌 소재 공공도서관에 대해 국비지원비율을 대폭 인상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보완되었다고 한다. 군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열악한 재정능력으로 농어촌 못지않게 문화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진한 지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의 정보화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자립도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가 지방비마련이 부담스러워 국고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세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기 시설투자로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한 이후, 장비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다. 정보화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인 LG CNS와 ECO측은 하드웨어에 대해 3년간, 소프트웨어에 대해 1년간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과 장비를 직접 운영해야 할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무상유지보수 계약의 만료 이후 시설 및 장비 운영의 구체적인 유지보수계획이 세워져 있지 못한 점은,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서관통계에 의하면, 조사 370관중 288관(77.8%)이 전산담당을 두고 있다고



<그림 9> 공공도서관 전산담당 인력구성

하였으나, 그중 전산직이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은 75관(26.1%)에 불과하고, 나머지 213관(73.9%)은 사서직원을 정보화 재교육을 거쳐 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그림 9> 참조). 그러나 이들 사서직 전담 인력의 경우 개인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재교육으로 전산업무에 원만히 적응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서직 전산담당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운영인력에 대한 유지보수교육이 단기적으로 기초적인 강의식 교육에 머물러, 실제 디지털자료실의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 4.2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보완점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공공도서관의 전산화 경과, 디지털서비스의 현황분석, 정보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보았다. 지적된 문제사안의 비중에 대해 개인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필자의 개인

적 판단에 따라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 개발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점들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디자인이나 서비스방식 등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디지털자료실 구축과 운영에 고려되어야 할 경영상 혹은 정책상 개선방안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 4.2.1 새로운 정의와 기준 필요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확산은 전통적 공공도서관봉사의 형식과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현상을 규정하는 법규와 도서관통계 등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적 기준과 집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서비스의 실체를 공공도서관 정보활동의 범주에서 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기준요소와 통계요소의 재구성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활동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접속자수, 사이버회원, 전자이용집계, 원문서비스실적, 전자책 종수, 전자저널 종수, 온라인DB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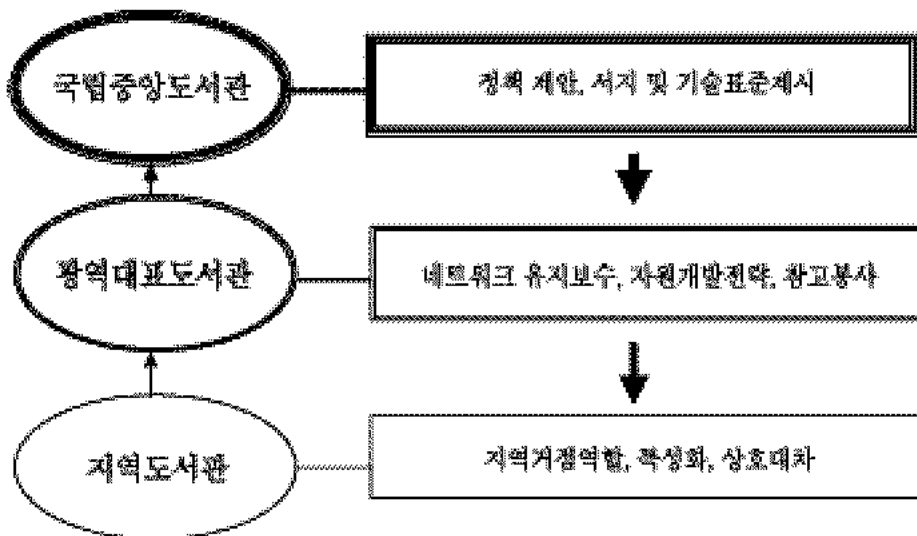
수 등 디지털서비스를 반영하는 요소가 도서관통계 및 평가척도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 4.2.2 도서관 수준별 역할분담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개발전략에서 중요하게 설정되어야 할 집행원칙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없애고, 도서관들마다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밀착적인 최적의 서비스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장비나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전국의 공공도서관마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적 혹은 기능적 역할분담에 따라 정보화 지원내용이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도서관의 지위와 기능적 역할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수행해야 할 디지털서비스의 내용은 구분되어 설정되어야 한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자칫 획일화된 시설 및 장비지원으

로 전국 어디를 가나 서비스의 형식과 제공자원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보화의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전국 440여개 공공도서관 모두에게 디지털정보서비스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시설지원이 마무리 되고나면, <그림 10>과 같이 이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지도와 조정을 거쳐 시설투자와 자원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광역시·도 대표도서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도 LSTA (Library Services & Technology Act)의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기본사업지침에 근거해 주정부에 자원을 배분할 뿐이고, 도서관사업의 투자와 집행은 지역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이 해당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독자적인 정보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지위와



<그림 10> 도서관수준별 역할분담

예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4.2.3 국가도서관망 통합을 지향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는 장기적으로 국가도서관정보망의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개발은 장래 지역정보센터로서 지역의 학교도서관과 전문도서관, 그리고 문고를 포괄하는 단계적 통합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자원의 개발과 제공방식에 대한 차별화된 투자전략이 요망된다. 현재 KOLIS-NET을 통한 통합서비스환경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전자도서관으로 통합되는 KERIS 및 KIST등의 연구정보망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 이들과 차별화되는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비교우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 4.2.4 정보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 확충

앞으로는 국민의 정보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관중 및 지역별로 이루어지던 자원공유와 협력활동이 국가도서관통합망의 수준에서 조정 분담되고, 그 속에서 공공도서관이 담당해야할 정보서비스의 역할이 설정되리라 예상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or.kr/index\\_kr.html](http://www.nic.or.kr/index_kr.html))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이 학습목적(41.3%)과 업무관련(25.6%), 생활정보(15.9%), 취미여가(15.4%), 기타(1.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및 전문도서관 이용자와 비교할 때,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수요자는

보다 대중적인 정보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중 학생들과 학습을 위한 이용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각종 어학강좌, 입시자료, 각종 시험대비 동영상 강의, 온라인 교육지도 등 다양한 학습사이트와 온라인DB에 대한 관문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4.2.5 지역별 정보화 편차의 시정책

앞에서 누차 지적되었듯이,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구축율과 홈페이지 서비스 수준의 지역별 편차는 매우 크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보화 시설투자가 낮고 주민의 정보수요 또한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균등한 정보권을 보장하고 심화된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대한 정보화 투자에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김영기 2002). 이들 낙후지역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는 대도시 지역에 비교하여 다양한 디지털자원을 동원할 수는 없더라도, 해당지역의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주제자원 구축을 집중화함으로써, 한정된 예산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도서관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혜택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문고 및 독서활동의 중심공간으로서 해당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하위조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의

제공까지도 고려해 볼 만 하다.

#### 4.2.6 장비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수요에 부응하여, 서비스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2~3년 이내에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확장이 요망된다. 디지털자료실 신규지원에 집착하다 보면 기왕에 지원된 장비와 프로그램이 어느새 구 버전이 되기 쉽다.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개발사업은 신규투자에 더불어 이미 지원된 장비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upgrade가 생명이다. 정보화 투자의 비율을 조정하여 신규부분과 갱신부분을 적절히 병행하여, 투자의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보완이 요망된다. 특히 핸드폰, PDA, 무선노트북 등의 이용자 서비스에 이동(Mobile) 및 무선(Wireless)방식을 적용하고, 24시간 365일 가능한 협력디지털 참고봉사지원시스템과 자동자료관리시스템, 자동대출반납시스템 등의 업무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투자에도 지속적 관심이 요망된다.

특히 숙지할 점은, 최적의 디지털서비스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시설과 장비의 최신성 못지않게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응용능력이라는 점이다. 최신의 장비와 시설을 보급하는 것과 함께, 이것들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디지털서비스로 개발시키기 위한 디지털자료실 운영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분야 기술발전을 감안하여 시설투자 초기의 단기교육 차원에서 벗어나,

중장기 정보화 교육계획의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7 디지털자료의 공정사용 제도화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 역할하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에는 최소한 국공립도서관에서 납본 수집한 국내 디지털자료에 대한 공적 접근채널로서 관내열람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간 디지털자료의 전송이 기술적 보안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허용되어,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이상을 실현하고 사회적 정보유통의 공적 임무를 진작하는 것이 요망된다.

한편 공공도서관에서 이용되는 디지털자료의 범주는 종래의 문헌자원을 디지털화한 문서파일은 물론, 음악, 미술, 사진, 시청각자료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동원되는 만큼, 이들 분야에 따라 매체자료들의 공정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연관되고 있다. 따라서 문헌, 음악, 미술, 사진,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별로 적용되어 왔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관행들을 일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자료에 대한 공정사용의 범위로 요약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설정이 요망된다.

#### 4.2.8 상업DB의 할인 제도화

국내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온라인DB들이 학술자료로서 그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외국의 디지털서비스는 도서관 외부 온라인DB 자원의 접속서비스에 매우 적극적인 기능

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특정주제와 관련되는 유익한 사이트를 분석한 링크서비스가 매우 폭넓게 제공되고 있는 점은 디지털서비스의 기능설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하다.

디지털서비스에 제공할 온라인DB들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지 못한 국내 실정에서는, 이용자 정보수요 평가에 기초하여 폭넓은 주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 축적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유료 온라인DB 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상업정보이용에 일정한 할인을 보장하는 요금정책을 요구함으로써, 소외계층과 서민의 정보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임무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상업정보의 할인정책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한 각종의 사설교육정보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지원기능에도 부합하고 주민의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4.2.9 하이브리드형 자원개발전략

공공도서관의 온라인 디지털서비스 개발은 문헌자료에 근거한 열람 및 참고봉사, 대출 등의 오프라인 도서관봉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최근의 정보화 투자는 정보유통의 주류적 채널로 부상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자원의 접근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도서관활동의 관심이 자칫 디지털서비스에만 집중됨으로써 문헌제공 및 문화행사 등의 전통적 서비스활동이 부실화되

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역주민의 정보수요에 밀착된 정보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정보화 투자는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를 조화시키는 매체 통합적 정보서비스환경을 전제해야 하며, 새로운 디지털자원의 수용과 전통적 문헌자료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Smith 2002).

## 5. 맺음말

정보화 투자에서 앞서가는 국내 일부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 기술수준은 미국의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 구성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신의 정보서비스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지역적 보급의 수준에 차이가 많고, 앞서가는 도서관과 뒤진 도서관 사이의 기술적 차이가 두드러진 점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정을 요하는 사안이다. 미국의 시카고 및 L.A.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에서 참고할 점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내 소장정보 서비스에 못지않게 도서관 밖의 각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을 연계하는 관문서비스 기능에 적지 않은 비중을 할애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해제 혹은 해설을 덧붙인 주제별 링크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3Com사를 설립한 밥 메트칼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메트칼프의 법칙(Metcalfe's Law) 혹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다.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비용은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만,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법칙이다. 여기서 가치의 증가는 단지 네트워크의 확장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모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개성적인 자원을 보유하게 될 때 그 의미는 최대의 가치를 갖게 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으로 동시화 된 네트워크 채널 상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전략은 전통적 인쇄환경에서 이어지는 디지털환경의 운영원리로서 더욱더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춘천소양정보도서관, 대구중앙도서관, 인천화도진도서관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자원 구축은,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을 디지털사회로 연장시키는 데 있어 설득력 있는 개발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별도서관의 디지털서비스는 각각의 도서관에서 구축한 고유한 주제자원개발에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도서관 밖의 네트워크 정보자원을 중개하는 관문역할에 있어서도 특성화 전략이 요구된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온라인DB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제하여 링크서비스를 개발한다면, 특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매우 유용한 주제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마다 특성화된 영역별로 사이트링크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주제 분석에 근거한 관문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공공도서관 디지털서비스의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결론에 대신한다. "서비스기술은 세계화 하고, 자원개발은 지역화 하라."

## 참고문헌

- 김영기. 2002. 도서관을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 발표논문집』. 한국도서관협회. 379-400.
- 김종률 외. 2002.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 서혜란. 2001. 한국공공도서관의 인터넷서비스 : 현황과 전망. 『정보관리학회지』, 18(1) : 23-39.
- 조찬식. 2001.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웹페이지 콘텐츠 분석. 『한국비블리아』, 12(2) : 105-124.
- 차미경. 2001.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지역봉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2(1) : 157-169.
- 한국도서관협회. 1992. 『한국도서관통계 1992』. 서울 : 동 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2. 『한국도서관통계 2002』. 서울 : 동 협회.
- 한국 문화관광부. 2002a.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 문화관광부. [cited 2003. 2. 3]. <[http://www.mct.go.kr/uw3/glosend.csh도서관발전계획\(최종\).PDF](http://www.mct.go.kr/uw3/glosend.csh도서관발전계획(최종).PDF)>.
- 한국 문화관광부. 2002b. 『도서관정보화 전략계획 (ISP)』. 국립중앙도서관. [cited 2003. 2. 10]. <<http://www.mct.go.kr/uw3/glosend.csh/IS최종보고.PDF>>.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문화기반 시설 관리운영평가연구 2002』. 문화

- 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도서 관중장기  
발전 방안연구』. 동개 발원. [cited  
2003. 2. 3]. <[http://www.kcpi.or.kr/  
database/bogose/D001228.PDF](http://www.kcpi.or.kr/database/bogose/D001228.PDF)>.
- 대구광역시중앙도서관. [cited 2003. 2. 15].  
<[http://www.tglnet.or.kr/home/defa  
ult.html/](http://www.tglnet.or.kr/home/default.html/)>.
-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cited 2003. 2.  
17]. <<http://www.hwadojinlib.or.kr/>>.
- 강원도 춘천시립도서관. [cited 2003. 2. 17].  
<[http://www.iccl.or.kr/iccl/index.htm  
l/](http://www.iccl.or.kr/iccl/index.html/)>.
- Chicago Public Library. [cited 2003. 2. 17].  
<<http://www.chipublic.org/cpl.html/>>.
- L. A. Public Library. [cited 2003. 2. 17].  
<<http://www.lapl.org/>>.
- Smith, Allen E. 2002. " Building on sure  
foundations: the overlooked dimen-  
sion of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68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August 18-24, 2002.  
[cited 2003. 2. 21]. <[http://www.  
ifla.org/IV/ifla68/prog02.htm](http://www.ifla.org/IV/ifla68/prog02.htm)>.